

# OUTLINE

- (69) -

## 221.

말씀: 롬 11:25

요절: 롬 11:25

성경은 몇 가지 신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비란 말 그대로 신비입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을 '신비'라고 부릅니다. 생명의 신비, 자연의 신비, 꿈의 신비 등 기적적인 어떤 현상들을 '신비'라고 합니다. 사람의 지식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지금도 모든 분야에서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해 활발하게 연구를 하지만 불가사의한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신비'를 다루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갖가지 신비를 알려 주시고, 그것들을 믿게 하실 뿐 아니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실험이나 관찰이나 논리나 수행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의 계시와 조명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신비를 알려 주시며, 이 신비들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

](고전4:1).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나누어 주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요, 복음의 청지기요(고전9:17),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그 은사를 써서 섬기는 자들입니다(벧전4:10).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이라면 우리가 맡은 신비들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흔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영으로 신비'를 말한다고 주장합니다(고전14:2). 영으로 말하는 신비란 자신도 전혀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신비들이 무엇인지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25절입니다. [ , 가 가 가 .](롬11:25). 이스라엘의 일부는 완악하게 되어 꺾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은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토와 나라를 잃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도들이 알아야 할 한 가지 신비를 말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버림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약속되어 있습니다(26). 세속 역사가들의 학설

이나 주장과 달리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민족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 위에 굳게 세워질 민족입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란 말은 이방인들의 수가 차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불법이 충만할 때까지를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불법이 충만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모두 용을 경배하고 짐승의 형상을 경배할 것입니다. 이 때 이방인들은 꺾이게 되고 유대인들은 다시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컬어 ‘이스라엘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신비들’에 대해서 살펴 볼 것입니다.

●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 [...]

](마13:11). 성경 신자들 외에 그 누구도 이 땅에 세워질 영원한 왕국에 대한 신비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는 한 왕국은 성경의 주제입니다. 천년 동안 지속될 이 왕국에서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계1:5, 5:10).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땅의 통치권을 받게 됩니다. 땅에 내려진 저주가 풀리고, 자연이 에덴의 낙원처럼 회복되며, 주를 아는 지식이 넘치는 그런 왕국이 임합니다. 이 왕국은 정치가들이나 종교인들이 세울 수 있는 이상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임하심으로 세우는 의의 왕국입니다. 하지만 세속의 역사학자들이나 철학자들, 종교인들은 이런 신비들에 대해 전혀 무지합니다. 이것은 점쟁이들이나 점성술가들이 알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성경의 계시를 믿을 때만 알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 [...]

](막4:11b). \*참조. 눅8:10.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진리입니다. 이 왕국은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들어가는 왕국입니다. 거둬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왕국입니다.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왕국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왕국입니다(눅17:21). 이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왕국을 우리의 영과 마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왕국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린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주의 기쁨, 주의 즐거움, 주의 능력, 주의 안식, 주의 평강, 주의 온유함, 주의 부드러운, 주의 오래 참으심,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등등에 대해 알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가 우리에게 허락된 증거입니다.

● **복음의 신비.** 은혜의 복음은 세상에 감추어진 신비였다가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

](엡6:19). 이 신비는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신비를 ‘사람들에게 받지도 배운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받은 복음의 신비는 이방인들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속 속하게 되어 그분의 약속에 참여자가 된다는 것(엡3:6)입니다. 누구든지 행위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며,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복음이 그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누구든지 의롭게 되는 은혜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이었습니다. [

](롬16:25-26). 이 신비는 구약에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니 지금 이 시대는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누가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란 책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집회를 여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비밀이 아닙니다. 거듭남 역시 비밀이 아닙니다. 복음은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났습니다. 갈라디아서 1:11-12을 보십시오. [ , 가  
가

].(갈1:11-12). 바울은 주의 계시로 복음의 신비를 알았고,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복음의 신비는 초대 교회 유대인 신자들이 잘 알지 못했던 내용입니다(행 15). 그러나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 사도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이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증거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는 바울에게 알려졌고, 바울 서신을 읽는 이들은 누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3-5, [ ( 가 . 가  
가 . )

](엡3:3-5). 복음의 신비는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져야 할 신비입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 진리는 다른 시대의 어떤 사람들도 알지 못했던 귀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 십자가의 신비. [

].(고전2:7).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지혜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진 지혜였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범죄자들 중의 하나로 계수되어 십자가에 못박혀 죽는다는 이 진리는 신비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신비를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계시로 말미암지 않고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로는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고전1:23). 그러나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고전1:24).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신비를 계시하셨습니다(고전2:10). 십자가의 진리는 역설의 진리요, 신비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요, 권능입니다. 십자가로 세상을 못 박고(갈6:14), 정과 욕심을 못 박았습니다(갈5:24). 제자도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옛 사람이 못 박혀 있고(롬6:6), 우리를 대적하던 의문에 쓴 증서들이 못 박혀 있습니다(골2:14).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것 외에 달리 자랑 거리가 없습니다(갈6:14a).

● 휴거의 신비. [ , 가 가 , 가

].(고전15:51). 성도들이 어느 날 홀연히 이 땅에서 저 하늘로 들림 받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땅에 속한 몸이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한 순간에 영광스런 몸을 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날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영광스런 몸을 입게 하실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공중 들림에 대한 이 진리는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바라는 신비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영광스런 몸을 입는 것, 약해지지도 쇠하지도 더럽혀지지 않는 몸을 입는 것, 물질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몸을 입는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경이로운 그런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가 이루어지기만을 소망합니다.

• **하나 됨의 신비.** [

.](엡1:9-10). 지금은 하나님의 뜻 외에도 마귀의 뜻이 있고,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때가 되면 주의 뜻만이 홀로 서고, 주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만물이 다 그분께 복종할 것이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엡6:12)이나 땅에 있는 것들(사람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십니다. 주님께 대적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고, 죄와 불법 자체가 사라지고, 마귀 원수는 물론이고 사망 자체가 폐해 집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천년 왕국이 끝난 후 영원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28, [

.](고전15:28). \*히2:8 참조(비교할 것).

• **교회의 신비.** [

가 .](엡5:32).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고 하며, 성도들을 지체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 기관이나 단체와 같이 믿는 자들의 조직이 아니라 '몸 된 유기체'입니다.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된 몸이란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각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요, 몸의 일부입니다. 고린도전서 12:27, [ .](고전12:27). [ (遲體) .](엡4:25b). [ (遲體) .](엡5:30). 이것은 '큰 신비'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형제들과 지체된 진리에 눈을 뜬다면 수많은 문제들이 일거에 사라질 것입니다.

•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 [

가 가 .](골1:26-27). 예수님께서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 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께 관한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요14:17)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성도의 몸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며,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 가 가 ? .](고후13:5).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십시오. [

.](롬8:10). 바울을 자신의 입으로 \*그리스도의 신비를 시인하고(골2:2), 그리스도의 신비를 담대히 말하게 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골4:2-4).

• **불법의 신비.** [

가 가 .](살후2:7). 불법의 신비란 경건의 신비와 대조되는 적그리스도의 신비로써 이 땅에 나타날 육화될 마귀를 말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불법의 신비가 일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관련된 것들, 땅위의 민족들, 땅에 관련된 모든 대언들이 이루어집니다. 재림과 관련된 500여 개의 대언들이 모두 성취될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일곱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공중에 쏟아 부을 때 하늘의 성전에서 왕좌로부터 “다 이루어졌도다”(계16:17)란 큰 음성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비’는 땅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 천년 왕국의 건설을 말합니다. 주님의 지상 재림을 일컫습니다.

● **큰 바빌론의 신비.** [

가  
 .](계17:5). 큰 바빌론의 정체는 성경 학자들마다 저마다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의 근본주의자들은 주저없이 ‘로마 캐톨릭 교회’라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이나 로마 캐톨릭이나 ‘성도들의 피와 순교자들의 피에 취한 것’은 사실입니다(계17:6). 하지만 캐톨릭은 큰 바빌론의 지류 중 하나일 뿐입니다. 비록 세력이 크고 강하고 뚜렷이 드러난 정체일 뿐입니다. 신약의 교회사와 마찬가지로 구약 역시 ‘대언자들의 피흘린 발자취’가 뚜렷합니다. 이스라엘을 멸족하려 했던 이집트의 파라오나 페르시아의 하만이나 해롯 등도 모두 큰 바빌론의 아류들입니다. 큰 바빌론의 정체를 로마 캐톨릭으로 잡으면 아벨로부터 피를 흘린 구약의 전 역사를 모두 날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캐톨릭이 나오기 전 로마 당국에 의해 행해진 10차례의 대 박해 역시 제외되어 버립니다. 서구 유럽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 민족들에서 행해진 박해도 모두 제외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8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몇 천만의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이슬람은 단 기간에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처리해 버렸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성도들을 전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도의 10억이 넘는 힌두교도들이나 불교 국가들 역시 성도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조선 후기 때부터 기독교 박해가 가해졌는데 한 번에 몇 천 명에서 몇 만 명씩 죽었습니다. 일제 시대가 되자 이번에는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교회에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이것이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북한에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 자들은 공개 처형됩니다. 캐톨릭은 ‘큰 바빌론’의 한 지류에 불과합니다.

장차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할 대환란 때에 이 땅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가 완전히 하나로 통합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신정 일치 국가의 단일 제국의 머리가 될 것이며, 자신을 높여 하나님으로 보일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은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바빌론의 모든 것을 계승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큰 바빌론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대 환란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한 실체로 드러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한 도시로 드러나는데 그 이름은 ‘큰 바빌론’입니다. 대환란 때 ‘큰 바빌론’이란 이름을 가진 한 도시가 세워지고, 세계의 HEADQUARTER 역할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큰 바빌론의 신비’에 해당합니다. 예루살렘이 우리 주님의 왕좌가 놓일 도시요, 천년 왕국 때 온 세상을 통치할 도성이라면 ‘큰 바빌론’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왕좌가 놓이며, 온 세상을 통치할 도시입니다.

● **이스라엘의 신비.** [

가  
 .](롬11:25). 민족적으로 배교한 이스라엘이 어느 한 날 주님을 믿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비’입니다. 이방인들의 불법과 죄악이 이 땅에 가득 찰 때 주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이것은 민족의 부활로 불립니다(롬11:15).

우리는 이 모든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이 신비들에 대해 무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